

[51] 7월

초 1일(경인) 새벽에 비가 오고 늦게는 개었다. 명나라 사람 세명이 왔는데, 부산(釜山)가는 길이라 했다. 송대립(宋大立)이 송득운(宋得運)과 함께 왔다. 안각(安珪)도 보러 왔다. 저녁에 서철(徐徹) 및 방덕수(方德壽)와 그의 아들이 와서 잤다. 이날 밤 가을 기운일 몹시 서늘하여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하랴. 송득운이 원수(元帥)진을 왕래하다 보니 종사관(從事官 * 황여일-黃汝一)이 큰 냇가에서 족대를 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오늘은 인종(仁宗)의 나라 제삿날인 것이다.

초 2일(신사) 맑음. 아침에 변덕수(卞德壽)가 돌아왔다. 늦게 신재운(申霽雲)과 평해(平海) 사는 정인서(鄭仁恕)가 종사관 심부름으로 문안하러 왔다. 오늘이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인데, 멀리 천리 밖에 와서 군복을 입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초 3일(임오) 맑음. 새벽에 앉아 있으니 싸늘한 기운이 뼈에 스민다. 비통한 마음이 한결 더해졌다. 늦게 정읍(井邑) 군사 이양(李良), 최언환(崔彦還) 및 건손(巾孫)등 3명을 심부름 시키라고 보내어 왔다. 늦게 장준완(葬俊琬)이 남해로부터 보러 와서 전하기를 남해원이 병이 중하다는 것이었다. 민망했다. 이윽고 합천(陝川) 군수 오운(吳雲)이 보러 와서 산성(山城)에 관한 일을 많이 이야기 하였다. 점심후 원수(元帥) 진중에 가서 황종사관(黃從事官 * 여일-汝一)과 이야기 하였다. 종사관은 전적(典籍)과 박안의(朴安義)와 활을 쏘았다. 이때 좌병사(左兵使)가 그 군관을 시켜 항복한 왜인 2명을 압송해 보냈는데, 청정(淸正)의 부하라고 했다. 해가 저물어 돌아왔다. 또 들으니 고령(高靈) 원이 성주(星州)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초 4일(계미) 맑음. 아침에 황 종사관이 정인서(鄭仁恕)를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이방(李芳) 및 유황(柳滉)이 왔다. 자원 입대하는 군인 흥양의 양첨(梁添) 찬(纘)과 기(紀)들이 왔다. 변여량(卞汝良), 변희보(卞懷寶), 황언기(黃彦己)들이 모두 벼슬하고서 보러 왔다. 변사증(卞師曾)도 변대성(卞大成)들과 보러 왔다. 점심 후 비가 뿌렸다. 아침밥때 안극가(安克可)가 보러 왔다. 어두워져서 큰 비가 오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초 5일(갑신) 비. 이른아침에 초계(草溪) 원이, 체찰사(體察使) 종사관 남이공(南以恭)이 경내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산성으로 문 앞을 지나갔다. 늦게 변덕수(卞德壽)가 왔다. 변존서(卞存緒)는 마흘방(馬訖昉)으로 갔다.

초 6일(을유) 맑음. 꿈에 윤삼빙(尹三聘)을 만났는데, 나주(羅州)로 귀양간다고 했다. 늦게 이방(李芳)이 보러 왔다. 빈 방에 홀로 앉았으니 그리움과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 하랴. 저녁에 바깥채에 나가 앉았다가 변존서가 마흘방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 안각(安珪) 형제도 흥백(興伯)을 따라 왔다. 이날 제사에 쓸 중배끼 5말을 꿀에다 만들어 봉해서 다시 시렁 위에 얹었다.

초 7일(병술) 맑음. 오늘은 칠석.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 하랴. 꿈에 원공(元公)과 한자리에 서 만났는데, 내가 원공 위에 앉아 음식상을 받자 원공이 즐거운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박영남(朴永男)이 한산도(閑山島)로 부터 와서 말하기를 그 주장(主將)의 잘못으로 대신 죄책받기 위해 원수(元帥)에게 붙들려 왔다는 것이었다. 초계(草溪)가 햇 건물들을 갖추어 보내 왔다. 아침에 안각 형제가 보러 왔고 저물녘에는 흥양 박응사(朴應泗)가 보러 오고 심준(沈俊)들도 보러 왔다. 의령(宜寧) 원전(金鈿)이 고령(高靈)으로부터 와서 병사의 처사가 뒤죽 박죽인 것을 많이 이야기 하였다.

초 8일(정해) 맑음. 아침에 이방(李芳)이 왔기에 밥을 대접해 보냈다. 그에게서 들으니 원수(元帥)가 구례(求禮)에서 벌써 곤양(昆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늦게 집주인 이어해(李漁海)가 최태보(崔台補)와 함께 보러 오고, 변덕수(卞德壽) 또한 왔다. 저녁에 송대립(宋大立), 유홍(柳洪), 박영남이 왔다가, 유 두 사람은 돌아갔다.

초 9일(무자) 맑음. 내일은 열(悅)을 아산(牙山)으로 보내려고 제사에 쓸 과물을 감봉(監封)했다. 늦게 윤감(尹鑑), 문보(文)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열과 변주부(卞主簿 * 존서-存緒)에게 작별 술을 권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달빛이 대낮 같이 어머님 그리는 슬픔과 울음으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초10일(기축) 맑음. 새벽에 열과 존서를 보낼 일로 앉자 날 새기를 기다렸다. 일찍 아침을 먹고 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보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구례(求禮)에서 온 말을 타고 가니 더욱 영려된다. 열 등이 막 떠나자 황 종사관(* 여일-汝一)이 와서 한참이나 이야기하였다. 늦게 서철(徐徹)이 보러 왔다. 정사명이 종

이로써 말혁(馬革) 만들기를 끝냈다 저녁에 홀로 빈 방에 있노라니 정회가 끊어 올라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뒤척거리기만 했다.

11일(경인) 맑음. 열(悅)이 어떻게 갔는지 걱정스러웠다. 더위가 아주 심하여 걱정을 금치 못했다. 늦게 변홍달(卞弘達), 신제운(申霽雲), 임중형(林仲亨)들이 보러 왔다. 홀로 빈 방에 앉아 있으니 그리운 마음이 어찌하랴. 비통하다. 비통하다. 종 태문(太文)이 종 종이(終伊)와 함께 순천(順天)으로 갔다.

12일(신묘) 맑음. 아침에 합천(陝川)이 햅쌀과 수박을 보내었다. 점심을 지을 즈음 방응원(方應元), 현응진(玄應辰), 홍우공(洪禹功), 임영립(林英立)들이 박명현(朴名賢)에게로부터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종 평세(平世)가 열(悅)을 따라 갔다가 돌아왔다. 잘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슬프고 한탄스러움이야 어찌 말하랴. 이희남(李禧男)이 사철쭉(*삿자리 만드는 풀) 맥 묶음을 베어 왔다.

13일(임진) 맑음. 아침에 남해(南海)가 편지를 보내고 음식물을 많이 보내면서 또 말하되, 싸움말(戰馬)을 끌어가겠다고 하기에 답장을 썼다. 늦게 이태수(李台壽),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이 보러 와서, 적 토벌할 일을 이야기 하였다. 송대립(宋大立), 장득홍(張得洪)도 왔다. 장득홍은 자비(自備)로 복무 한다가에 양식 두 말을 내 주었다. 이날 침을 캐어 왔다. 이방(李芳)도 보러 왔다. 남해 아전이 심부름군 두 명을 데리고 왔다.

14일(계사) 맑음. 이름 아침에 정사명에게 종 평세(平世), 귀인(貴仁)과 짐말 두 필을 주어 남해(南海)로 보냈다. 정은 전마를 끌어올 일로 보낸 것이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체찰사와 함께 한 곳에 이르니 송장들이 널렸는데, 혹은 밟고 혹은 목을 베기도 하였다. 아침 밥 때 문인수(文麟壽)가 와가채와 동아선을 가져왔다. 방응원(方應元), 윤선각(尹先覺), 현응진(玄應辰), 홍우공(洪禹功)들과 이야기 하였다. 흥은 그 아버지의 병으로 종군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팔이 아프다고 핑계하니, 놀라운 일이다. 오후 10시께 황 종사관이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하고 또 김해 사람으로 왜적에게 붙었던 김억(金億)의 고목(告目)을 보여 주었다. 거기 의하면 「초 7일에 왜선 5백여척이 부산(釜山)으로 나오고 초 9일에 왜선 천척이 합세하여 우리 수군과 절영도(絶影島) 앞 바다에서 싸웠는데 우리 전선 5척이 두모포(豆毛浦)에 표류해 대었고, 또 7척은 간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곧 황 종사관과 군대 점호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황 종사관과 일을 의논하고 그대로 앉아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이윽고 내가 타고 간 말을 홍대방(洪大邦)더러 달려보라 했더니 잘 달리는 것이었다. 날씨가 비 올 기세였으므로 곧 돌아왔는데, 집에 달자 비가 마구 쏟아졌다. 오후 8시께 개었는데, 달빛이 훨씬 더 밝았다.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15일(갑오) 비가 오다 개다 했다. 늦게 조신옥(趙信玉), 홍대방들과 여기 있는 윤선각(尹先覺)까지 9명을 불러 떡을 차려 먹었다. 아주 늦어서 중군(中軍) 이덕필(李德弼)이 왔다가 지물어 돌아갔다. 그 편에서 들으니, 수군 20여 척이 적에게 패했다는 것이다. 통분 통분하다. 막을 방책 없음이 한스럽다. 어두워서 비가 크게 내렸다.

16일(을미) 비가 오다 개다 하면서 종일 흐리고 맑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손응남(孫應男)을 중군(*이덕필)에게 보내어 수군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 중군의 말을 전하는데, 좌병사(*경상)의 긴급 보고로 보아 불리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갖추갖추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한탄스런 일이다. 늦게 변의정(卞義禎)이란 사람이 수박 두 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 꼴이 갈지않아 어리석고 용렬하다. 두메에 박혀 사는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리라. 이 역시 소박한 태도이다. 이날 낮에 이희남(李禧男)을 시켜 칼을 갈게 했는데, 아주 잘 들어 적장의 맨 대가리를 벨 만했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들 열(悅)이 길가기에 고생 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저녁때 영암 송진면(靈岩松進面) 사는 사삿집종 세남(世男)이 서생포(西生浦 *울산시 서생리)로부터 알몸으로 왔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7월 초 4일 전 병사의 우후가 타고 있던 배의 격군이 되어 초 5일에 칠천량(漆川梁 *통영군 장목면)에 이르러 자고 초 6일 옥포(玉浦 *거제군 이운면 옥포리)로 들어갔다가 초 7일 새벽에 말고지(末串)를 거쳐 다대포(多大浦 *동래군 산하면 다대리)에 이르러 왜선 8척이 정박하고 있음을 보고 여러 배들이 바로 돌격했더니, 왜인은 남김없이 물으로 올라가고 빈 배만 걸려 있어 우리 수군들은 그것을 끌어내어 불 지르고, 그 길로 부산 절영도(絶影島) 바깥 바다로 향하다가 마침 적선 천여 척이 대마도로부터 건너오는데, 서로 싸우려 했더니 왜선은 흩어져 회피하므로 끝내 잡아 초멸할 수도 없었고, 세남이 탄 배와 다른 배 6척은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서생포 앞 바다에까지 표류하여 물으로 오르려고 하자 거의 다 살륙을 당하고 세남만은 혼자서 수풀속으로 들어가 기어서 목숨

을 살려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듣고 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의 힘 미더운 것을 오직 해군뿐인데, 해군이 이러하니 다시 더 바라볼 것이 없다. 거듭거듭 생각 할수록 분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또 선장 이엽(李曄)이 적에게 포박되었다 하니 더욱 통분하다. 손응남(孫應男)이 집에 돌아갔다.

17일(병신) 가끔 비가 내렸다. 아침에 이희남(李禧男)을 황 종사관에게 보내어 세남의 말을 전하였다. 늦게 초계(草溪) 원이 벽견산성(碧堅山城)으로부터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송대립(宋大立), 유황(柳滂), 유홍(柳泓), 장득홍(張得弘)등이 보러 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갔다. 변대헌(卞大獻), 정운룡(鄭雲龍), 득룡(得龍), 구종(仇從)들은 모두 초계(草溪) 아전들인데, 어머님 족성의 같은 파(派) 사람으로서 보러 왔다. 큰 비가 종일 내렸다. 이름 적지 아니한 사령장을 신여길(申汝吉)이 바다 가운데서 잃어버렸으므로 경상 순변사가 신문하여 그 기록을 가져 왔다.

18일(정유) 맑음. 새벽에 이덕필(李德弼)이 변홍달(卞弘達)과 함께 와서 전하는 말이 「16일 새벽 수군이 밤 기습으로 통제사 원균이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 수사(*최호-崔湖) 및 여러 장수들과 함께 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것이었다. 듣자니 통곡이 터져 나오기를 이길 길이 없다. 이윽고 이 원수(元帥)가 와서 말하기를 「이미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하면서 오후 10시경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직접 해안 지방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방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더니 원수는 그 위에 더 좋아할 수 없었다. 나는 송대립(宋大立), 유황(柳滂), 윤선각(尹先覺), 방응원(方應元), 현응진(玄應辰), 임영립(林英立), 이원룡(李元龍), 이희남(李禧男), 홍우공(洪禹功)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삼가현(三嘉見)에 이르니 새로 부임한 원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겸(韓致謙)도 와서 오래 이야기하였다.

19일(무술)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는 길에 동산 산성(東山山城 *丹城에 있음)에 올라 그 형세를 보니 매우 험고하여 적이 엿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대로 단성현(丹城縣 *산청군, 단성면)에서 눌러 유숙했다.

20일(기해)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 권문임(權文任)의 조카 권이청(權以淸)이 보러 오고 원도 보러 왔다. 낮에 진주(晉州) 정개산성(定介山城 *鼎蓋山) 아래 있는 강정(江亭)에 이르렀다. 진주 목사가 보러 왔다. 굴동(屈洞 *진양군 수곡면 창촌리?) 이희만(李希萬)의 집에서 잤다.

21일(경자) 맑음. 일찍 떠나 곤양군(昆陽郡)에 이르니 군수 이천수(李天樞)도 고을에 있고 백성들도 많이 제 공장에 있어 혹은 울 버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밀보리밭을 갈기도 했다. 점심 후 노량(露梁 *하동군 금양면 노량리)에 이르니 거제(巨濟) 원안위(安衛)와 영등포(永登浦) 조계종(趙繼宗)등 10여인이 와서 통곡하고 피해 나온 군사와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는데, 경상수사(*배설-裴榘)는 도망가고 보이지 아니했다. 오후 이의득(李義得)이 보러 왔기에 패하던 정황을 물었다. 모든 사람이 울며 말하기를 「대장 원균(元均)이 적을 보자 먼저 물로 달아 나고 여러 장수들도 모두 그같이 물로 달아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대장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입으로 옮길 수가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고들 했다. 거제의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원과 새벽 2시경까지 이야기 했다.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해 눈병을 얻었다.

22일(신축) 맑음. 아침에 배설(裴榘 *경상우수사)이 보러 와서 원균이 패망한 일을 많이 말하였다. 식후에 남해 원 박대남(朴大男)이 있는 곳에 이르니 병세가 거의 구할 수 없이 되었다. 싸움말(戰馬) 바꿀 일을 다시 이야기 했다. 종 평세(平世)와 군사 한 명을 데려 오겠다고 한다. 오후에 곤양(昆陽 *사천군 곤양면 성문리)에 이르러 몸이 편치 않아 그대로 잤다.

23일(임인)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에 노량(露梁)에서부터 만들던 서류를 송대립에게 주어 먼저 원 수부(元帥府)로 보내고 뒤따라 떠나 곤양 십오리원(十五里院 *곤명면 봉계리)에 이르니 배백기(裴伯起) 부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말에서 내려 잠깐 쉬고 진주 운곡(雲谷 *초고에 屈洞이라 썼다가 雲谷이라 고쳐 썼다) 전일 숙박하던 곳에서 잤다.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다. 백기(伯起)도 와서 잤다.

24일(계묘) 비, 비. 그치지 않았다. 한치겸(韓致謙), 이안인(李安仁)이 부사(副使)에게로 돌아갔다. 정(鄭)의 종 예손(禮孫)이 손(孫)의 종과 함께 돌아갔다. 식후에 이홍훈(李弘勳)의 집으로 옮겼다. 방응원(方應元)이 정성(鼎城 *하동면 옥종면)에서 와 전하기를 황 종사관(黃從事官)이 산성에 와서 연해안 사정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더라는 것이다. 군량 2섬, 말

먹이 콩 2섬과 말 편자 7벌을 가져 왔다. 이날 저녁 배 조방장(*경남-慶南)이 보러 왔기에 술을 주어 위로했다.

25일(갑진) 늦게 개었다. 황 종사관이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다. 조방장 김언공(金彦恭)이 보러 왔다가 원수부(元帥府)로 갔다. 배수립(裴樹立)이 보러 오고 이 곳 주인 이홍훈(李弘勳)도 보러 왔다. 박남해(朴南海 *대남-大男)가 그 종 용산(龍山)을 보내서 내일 보러 들어 온다고 고했다. 저녁때 배백기(裴伯起)의 병을 가 보니 고통이 극도로 심했다. 걱정, 걱정이 다. 송득운(宋得運)을 황 종사관에게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26일(을사)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일찍 밥을 먹고 정성(鼎城) 밑에 있는 송정(松亭) 아래로 가서 황 종사관 및 목사(牧使)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27일(병오) 종일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 정성 건너편 손경례(孫景禮)의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늦게 동지(同知) 이천(李薦)과 판관(判官) 정제(鄭霽)가 체찰사로부터 와서 전령을 전달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동지(李同知)는 배 조방장에게 가서 잤다.

28일(정미) 비, 비. 이희량(李希良)이 보러 왔다. 초저녁에 이동지와 진주 목사와 소촌 찰방(召村察訪) 이시경(李蓍慶)이 와서 밤에 이야기하다가 자정이 지나 돌아갔다. 모두 응전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었다.

29일(무신) 비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이 군거(李君舉 * 동지 이천의 자) 영공(令公)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체찰사에게로 보냈다. 늦게 냇가로 나가 군사를 점고하고 말을 달렸는데, 원수(元帥)가 보낸 군대는 모두 말도 없고 활에 화살도 없으니 소용 없었다. 탄식할 일이다. 저녁때 들어오다가 배동지(裴同知)와 박남해(朴南海)에게 들렸다. 밤새 큰 비가 왔다. 찰방(察訪) 이시경에게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52] 8월

초 1일(기유) 큰 비가 내려 물이 불었다. 늦게 이 찰방(李察訪 * 시경 蓍慶)이 보러 오고 조신옥(趙信玉), 홍대방(洪大邦)들도 보러 왔다.

초 2일(경술) 잠시 날이 들었다. 홀로 수루(戍樓)의 마루에 앉았으니 그리운 회포가 그 어찌 하랴.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 징조가 있었다.

초 3일(신해)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전관(宣傳官) 양호(梁護)가 뜻 밖에 들어와서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가져 왔는데, 분부의 내용인즉, 감사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의 명령이었다. 속배(肅拜)한 뒤에 받자온 서장을 써서 봉해 올리고 곧 길을 떠나, 바로 두치(豆恥) 가는 길을 들어섰다. 오후 8시께 행보역(行步驛 * 하동면 회천면 여의리)에 이르러 말을 쉰 다음, 자정이 넘어 길을 떠나 두치(豆恥 * 광양면 다압면 섬진리)에 이르니 먼동이 트려 했다. 박남해(*대남-大男)가 길을 잃고 강정(江亭)으로 잘못 들어갔으므로 말에서 내려 불러 왔다. 쌍계동(雙溪洞 * 하동군 하계면 탐리)에 이른 즉, 뽕족뽕족한 돌들이 흘러져 있는데, 갓은 비에 물이 넘쳐 어렵사리 건넜다. 석주(石柱 * 구례군 토지면 연곡)에 이르자 이원춘(李元春)가 유해(柳海)가 복병하여 지키다가 나와서 보고 적 토벌할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였다. 저물어서 구례(求禮)에 이르렀는데, 경내가 쓸쓸하였다. 성 북문 밖(*구례군 구례면 봉북리) 전날 주인했던 집에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난했다는 것이었다. 손인필(孫仁弼)이 곧 보러 왔는데 곡식까지 지고 왔으며, 손응남(孫應男)은 그 전에 벌써 이른 감(柑)을 가져 왔었다.

초 4일(임자)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 압록강원(鴨綠江院 * 곡성군 죽곡면 상록리)에 이르러 점심을 짓고 말의 병도 고쳤다. 고산 현감(高山縣監 * 최진강-崔鎭岡)은 군인 인도할 일로 와서 수군 일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했다. 오후에 곡성(谷城)에 이르니 관청이고 민가고 온통 비었다. 이 고을에서 잤다. 박남해는 곧 바로 남원(南原)으로 갔다.

초 5일(계축)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옥과(玉果 * 곡성군 옥과면) 지경에 이르니 피난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놀라운 일이다. 말에서 내려 타일렀다. 현(縣)으로 들어가면서 이기남(李奇男) 부자(父子)를 만나 함께 현에 이르니 정사준(鄭思竣), 사립(思立)이 마중 나오기에 함께 이야기 했다. 고을 원(*홍요좌-洪堯佐)이 처음에는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아니 하니 조금있다가 보러 왔다. 붙잡아다 처벌하려 한때문에 보러 온 것이다.

초 6일(갑인) 맑음. 이날은 옥과에 머물렀다. 오후 8시께 송대립들이 걱정을 탐지해 가지고 왔다.

초 7일(을묘) 맑음.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곧바로 순천(順天)으로 가는데, 길에서 선전관(宣傳官) 원집(元集)을 만나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병사(兵使)의 군대가 모조리 부서져 돌아가는 것이 길에 줄대였으므로 말 세필과 활, 화살을 약간 뺏어왔다. 곡성(谷城), 강정(江亭 * 석곡면 유정리)에서 잤다.

초 8일(병진) 새벽에 길을 떠나 아침밥을 부유창(富有倉 * 순천군 주암면 창촌리)에서 먹었는데, 병사(兵使)는 이미 명령하여 불을 질러 놓았다. 광양 원(光陽峽) 구덕령(具德齡), 나주 판관(羅州判官) 원종의(元宗義), 옥구원(沃溝峽 * 김희온-金希溫)들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내가 왔다는 것을 듣고 급히 달려 배경남(裨慶男)과 함께 구치(鳩峙)에 이르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영을 내린 즉, 한꺼번에 나와 절을 하였다. 나는 피해 다니는 것을 들어 책망을 하니 모두 그 죄를 병사 이복남(李福男)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곧 길을 재촉하여 순천(順天)에 이르니 성 안팎이 인적하나 없이 쓸쓸하였다. 충 혜희(惠熙)가 와서 보기에 의병자의 사령장을 만들어 주고, 또 총통(銃筒) 따위는 옮겨 묻어 두라 일렀다. 장편전(長片箭)은 군관들이 나누어 갖도록 분부하고 그 부(府)에서 놀러 잤다.

초 9일(정사) 맑음. 일찍 길을 나서 낙안(樂安 * 승주군 낙안면)에 이르니 5리 밖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러 나왔다. 흠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병사(* 이복남-李福男)가 적이 쳐들어 온다고 떠들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에 백성들도 흠어져 도망가는 것이라 했다. 관청에 들어가니 고요하여 사람의 소리가 없었다.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김제(金提) 군수 고봉상(高鳳翔)들이 와서 절하였다. 늦게 보성(寶城), 조양(兆陽 * 조성면 조성리)에 이르러 김안도(金安道) 집에서 잤다.

초10일(무오) 맑음. 몸이 편찮아 안도의 집에서 묵었다.

11일(기미) 맑음. 아침에 양산원(梁山沅)의 집으로 옮겨 묵었다. 송희립(宋希立) 최대성(崔大晟)이 보러 왔다.

12일(경신) 맑음. 장계 초안을 잡았다. 그대로 묵었다. 거제(巨濟), 발포(鉢浦)가 보러 왔다.

13일(신유) 맑음. 거제 현령(* 안위-安衛) 및 발포 만호(* 소계남-蔬季男)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수사(水使 * 백석-裨楔)와 그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을 알았다. 우후 이몽구(李夢龜)가 와서도 보러 오지 않았다. 하동(河東) 원에게서 들으니, 정개성(鼎蓋城)과 벽견성(碧堅城)도 병사가 스스로 외진(外陣)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14일(임술) 맑음. 아침에 이몽구에게 곤장 80대를 때렸다. 밥을 먹은 뒤 장계 7통을 봉해서 윤선각(尹先覺)을 시켜 올려 보냈다. 오후에 어사(* 임몽정-任夢正) 만날일로 보성군(寶城郡)으로 가서 잤다. 밤에 큰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15일(계해) 비, 비. 늦게 활짝 개었다. 식후 열선루(列仙樓)에 나가 앉았노라니 선전관 박천봉(朴天鳳)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 왔는데, 8월 초 7일에 만들어진 서류였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은 경기(京畿) 지방을 순행 중이라 한다. 곧 편지 받은 데 대한 장계를 작성했다. 보성 군기(軍器)를 점고하여 네 마리 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녘 흰 달이 다락위를 비치니 심회가 편안치를 못하였다.

16일(갑자) 맑음. 아침에 보성 원과 군관들을 굴암(屈岩)으로 보내어 피해 달아난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돌아가는 편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 배응경) 및 어사 임몽정에게 편지 답장을 부쳤다. 사령들을 박사명(朴士命) 집으로 보내었더니 사명의 집은 벌써 비어 있더라고 했다. 오후에 활장이(弓匠) 지이(智伊) 및 태귀생(太貴生), 선의(先衣), 대남(大男)들이 들어 왔다. 김희방(金希邦), 김봉만(金鵬萬)들이 왔다.

17일(을축) 맑음. 일찍 밥을 먹은 뒤 곧바로 장흥(長興) 땅 백사정(白沙汀)으로 갔다. 점심 후 군영구미(軍營仇未 * 강진군 고조면)로 가니 경내가 벌써 사람 하나 없었다. 수사 배설(裨楔)은 탈 배도 보내지 않았다. 장흥(長興)의 군량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군량을 모조리 도둑질하여 나눠 가져가던 참인데 마침 그때 이르러 잡아다 호되게 곤장을 때렸다. 놀러 거기서 잤다.

18일(병인) 맑음. 회령포(會寧浦 * 장흥군 대덕면 회진리)에 갔는데, 수사 배설이 배멀미를 핑계대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그 포구 관청에서 잤다.

19일(정묘) 맑음. 여러 장수들이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는데, 배설은 받들어 숙배하지

아니했다. 그 건방진 태도가 말할 수 없었기에 그 영리(營吏)를 곤장 때렸다. 회령포 만호 민정봉(閔廷鵬)이 그 전선(戰船)에서 받은 물건을 사사로이 피난인 위덕의(魏德毅)들에게 준 죄로 곤장 20대를 쳤다.

20일(무진) 맑음. 앞 포구가 협착하여 이진(梨津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진을 옮겼다.

21일(기사) 맑음. 날이 채 새기 전에 광란이 일어 몹시 앓았다. 차게 해서 그런가 싶어 소주를 마셨더니, 이윽고 인사 불성이 되어 깨어나지 못할 뻔 했다. 밤을 앓아 새웠다.

22일(경오) 맑음. 광란이 더욱 심해져 기동할 수가 없었다.

23일(신미) 맑음. 통증이 몹시 심해 배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기로 배를 버리고 물에 나와 머물렀다.

24일(임신) 맑음. 일찍 도괘(刀掛)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어란(於蘭 *해남군 송면 어란리) 앞 바다에 이르니 가는 곳마다 벌써 텅텅 비었다. 바다에서 잤다.

25일(계유) 맑음. 그대로 거기 머물렀다. 아침을 먹을 때, 당포(唐浦)의 보자기가 놀아 먹이던 소를 훔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되, 「왜적이 왔다 왜적이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 퍼뜨린 두 명을 잡아 곧 목베어 효시(梟示)하게 하니 군중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26일(갑술) 맑음. 그대로 어란에 머물렀다. 임준영(任俊英)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적이 이진(梨津)까지 온 것을 고하였다. 우수사가 왔다.

27일(을해) 맑음. 그대로 어란 바다 가운데서 머물렀다.

28일(병자) 맑음. 적선 8척이 뜻밖에 들어오니 여러 배들이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려 하고 경상수사(*배설-裒楔)도 달아나려고 했다. 나는 꼼짝 않고 있다가 적선이 다가 오자 각지기(角指旗)를 흔들며 뒤쫓으니 적선을 물러갔다. 갈두(葛頭 *해남군 송지면)까지 쫓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장도(獐島)로 옮겨 머물렀다.

29일(정축) 맑음. 아침에 벽파진(碧波津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으로 건너갔다.

30일(무인)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53] 9월

초 1일(기묘)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초 2일(경진) 맑음. 정자에 내려가 앉았는데 보자기 점세(占世)가 제주(濟州)로 부터 보러 왔다. 이날 새벽 배설(裒楔)이 도망갔다.

초 3일(신사) 비가 뿌렸다. 뜰 아래 머리를 웅크리고 있으니 그 심회가 어떠하랴.

초 4일(임오) 북풍이 크게 불었는데 각 배를 겨우 보전했다. 천행이다.

초 5일(계미) 북풍이 크게 불었다. 각 배가 부지할 수 없다.

초 6일(갑신) 바람은 자는듯 했으나 물결은 가라 앉지 않았다.

초 7일(을유) 바람이 비로서 그쳤다. 탐방(探望) 군관 임중형(林仲亨)이 와서 고하기를, 「적선 55척 가운데 13척이 이미 어란(於蘭 *해남군 소지면 어란리)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뜻이 수군에 있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각 배에 엄하게 신척하였다. 오후 4시께 적선 13척이 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우리 배도 닳을 들고 바다로 나가 마주 대들면서 공격하니 적선은 배를 돌려 도망쳤다. 먼 바다까지 쫓아가는데, 바람과 물결에 모두 거슬러 배를 부릴 수 없으므로 벽파진으로 되돌아왔다. 밤 습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후 10시께 적선이 포를 쏘면서 밤 습격을 해오자 여러 배가 겁을 집어 먹은 것 같으므로 다시 엄하게 영을 내리고 내가 탄 배가 곧 바로 적선을 향해 달려들면서 포를 쏘니 적도는 능히 당해 내지 못하고 자정께 달아났다. 이들은 전에 한산도(閑山島)에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었다.

초 8일(병술) 맑음. 적선이 오지 않았다.

초 9일(정해) 맑음. 이날이 구일(명절)이다. 군사를 먹이려는 참인데, 마참 부찰사(副察使) 군량 중 제주 소 5마리가 왔다. 녹도(*송여중-宋汝悤)와 안골포(安骨 *우수-禹壽)를 시켜 그것을 잡아 군인들에게 먹이고 있을 때 적선 2척이 감보도(甘甫島 *진도군 고진면)로 곧

장 들어와 우리 배의 많고 적음을 살피는 것이었다. 영등포 만호 조계종(趙繼宗)이 뒤쫓았으나 잡지는 못했다.

초10일(무자) 맑음. 적도는 멀리 도망갔다.

11일(기축) 맑음.

12일(경인) 비.

13일(신묘)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14일(임진)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임준영(任俊英)이 육로를 정탐하고 달려와 말하기를, 「적선 55척이 벌써 어란 앞 바다에 들어왔다」고 했다. 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 온 중걸(仲乞 * 김중걸-金仲傑)의 말도 전했는데 「중걸은 이 달 초 6일 달마산(達摩山 * 해남군 송지면)으로 피난 갔다가 왜인에게 사로잡혀 묶인바 되어 왜의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는 김해(金海) 사람이 왜장에게 청을 해서 결박을 풀어 주더니 밤에 그 김해 사람이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하기를, 왜놈들이 하는말이 조선 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뒤쫓아 혹은 사살하고 혹은 배에 불질렀으니 보복을 얻을 수 없다. 여러 배를 모아 수군을 모조리 죽인 뒤 곧바로 경강(京江)으로 올라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역시 그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수영(右水營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으로 전령선(傳令船)을 보내어 피난민들을 물으로 올라가게 하도록 일렀다.

15일(계사) 맑음. 밀물이 들었다. 여러 배를 거느리고 우수영 앞 바다로 들어가 거기서 잤다. 밤 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16일(갑오) 맑음. 이른 아침 망군(望軍)이 와 보고하기를, 「적선 무려 2백여척이 명량(鳴梁 * 해남군 문내면 명양)을 거쳐 곧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를 불러 약속을 밝힌 다음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적선 1백 33척이 우리배를 에워쌌다. 대장선이 홀로 전선 속으로 들어가 포환(丸)과 화살을 풍우같이 쏘아내건만 여러 배들은 바라보면서 진군하지 않아, 사태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질러 있기로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되, 「적이 비록 천 척이라도 감히 곧바로 우리 배에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심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돌아다보니, 이미 1마장 가량 물러났고 우수사 김억추(金億秋)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가물가물했다. 배를 돌려 바로 중군(中軍) 김응함(金應)의 배로 가서 먼저 목 잘라 효시(梟示)하고 싶었지만,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가 점점 더 멀리 물러나고 적선이 달려들게 되어 사세가 낭패될 것이라 중군에게 군령 내리는 기와 초요기(招搖旗)를 세우니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안위(安衛)의 배도 왔다. 나는 뱃전에 서서 친히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하고 다시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으려느냐. 물러가면 살 듯 싶으냐」했더니, 안위가 황급히 곧바로 들어 싸우려 할때, 적장의 배와 다른 2척씩 안위에 배에 달라붙고 안위의 격군 칠 팔명이 물에 뛰어들어 해엄을 치니 거의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안위의 배가 있는 데로 갔다. 안위 배위의 군사들은 죽기를 한하여 마구 쏘아대고 내 배의 군관들도 빗발같이 쏘아대어 적선 2척을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하니 천행 천행이다. 우리를 에워쌌던 적선 30척도 깨뜨림을 당하니 모든 적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범접해 오지 못했다. 그곳에 머무르려 했으나 물이 빠져 배를 정박시키기 어려웠으므로 건너편..... 포로(* 이 浦가 위에 글자가 빠져 있음)진을 옮겼다가 달빛을 타고 당사도(唐島 * 무안군 양태면)도 옮겨 밤을 지냈다.

17일(을미) 맑음. 여오을도(汝吾乙島 * 무안군 지도면 어의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와 머무르고 있었다. 임치 첨사(臨淄僉使 * 홍건-洪堅)는 배에 격군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18일(병신) 맑음. 그대로 그 곳에 눌러 머물렀다. 임치 첨사가 왔다.

19일(정유) 일찍 떠나 칠산도(七山島 * 영광군 낙월면)를 건너는데, 바람은 순하고 하늘은 맑아 배를 부리기가 아주 좋았다. 법성포(法聖浦 *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선창에 이르니 적이 벌써 침범해 들어와서 인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해질 무렵 홍룡 고지(洪龍串 * 영광군 흥농면)로 돌아가 바다 가운데서 잤다.

20일(무술) 맑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배를 몰아 고참도(古參島 * 영광군 위도면) 위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배를 대고 있었다. 이광보(李光輔)도 와서 보고 이지화(李至和) 부자가 또 왔다.

21일(기해) 맑음. 새벽에 나가서 고군산도(古群山島 * 옥구군 미면 선유도)에 이르니 호남 순찰사(* 박홍로)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배를 타고 옥구(沃溝)로 갔다는 것이다.

22일(경자) 맑음.

23일(신축) 맑음.

24일(임인) 맑음.

25일(계묘) 맑음.

26일(갑진) 맑음. 이날 밤 허한(虛汗)이 온몸을 적셨다.

27일(을사) 맑음. 송한(宋漢)이 크게 이긴것을 보고하는 장계를 가지고서 배를 타고 올라갔다. 정제(鄭霽)도 충청 수사에게 군령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 몸이 몹시 편치 않아 밤새 고통했다.

28일(병오) 맑음. 송한과 정제가 바람에 막혀 되돌아왔다.

29일(정미) 맑음. 송한들이 바람이 순조로와 떠나 갔다.

[55] 10월

초 1일(무신) 맑음.

초 2일(기유) 맑음. 아들 회()가 가족(家屬)들이 생사를 알아보러 올라갔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심회가 만갈래였다.

초 3일(경술) 맑음. 새벽에 배를 띄워 변산(邊山)을 거쳐 곧바로 법성포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부드러워 따뜻하기가 봄날같았다. 저물어서 법성포 선창 앞에 이르렀다.

초 4일(신해) 맑음.

초 5일(임자) 맑음.

초 6일(계축) 흐리고 비가 오다가 눈이 흩뿌리기도 했다.

초 7일(갑인) 흐리며 구름이 걷히지 않은 채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초 8일(을묘) 맑으며 바람도 순해지는 것 같았다. 새벽에(* 다음부터 글자가 빠져 있다).....

정유년 일기는 두 책인데, 제1책은 4월 초 1일부터 10월 초 8일까지로 끝나 있고, 제 2책은 다시 8월 초 5일부터(4일기사는 끝 부분만 있는데 그나마 글자가 안 보이는 곳이 많음) 12월 30일까지로 끝나 있다. 그러므로 8월 초 5일부터 10월 초 8일까지는 두 책이 중복되어 있는데, 기사는 약간 가감이 되어 있다. 총무공이 왜 두번 썼는지 알 수 없으나, 간지(干支)가 틀린 것이 고쳐져 있고 제 2책의 기사가 약간 자세하게 적혀 있음을 참고할 것이다. 여기서는 두 책을 다 번역해 둔다.

(역자주석)

[56] 8월

초 5일(계해) 맑음. (첫머리의 글자가 빠져 있음) 거느리고 온 군사를 인계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록원(鴨祿遠 * 안록원)에 이르러 병사(兵使)가 경솔히 퇴각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점심 후에 곡성현(谷城見)에 이르니, 고을이 온통(이대목에도 글자가 빠져 있음) 말 먹일 것도 구하기 어려웠다. 놀러 잤다.

초 6일(갑자) 맑음. 아침 식후에 길을 떠나 옥과(玉果) 지경에 이르니 순천과 낙안의 피란민들로 길이 가득 찼으며, 남자 여자가 서로 부축하고 가는 것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울면서,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인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하였다. 길 옆에 큰 해나무가 있기에 내려 앉아서 말을 쉬게 했다. 순천 이기남(李奇男)이 와서 어디서 죽을런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옥과현(玉果縣)에 이르니, 원은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사준(鄭思竣), 사립(思立)이 먼저 와서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조용복(曹應福), 양동립(梁東立)도 나를 따라 이리로 왔다. 나는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는 원을 붙잡아 내다가 곤장을 치려고 하였더니, 원 홍요좌(洪堯佐)가 미리 내 뜻을 알고 급히 나왔다.

초 7일(을축) 맑음. 일찍 떠나 바로 순천으로 향하는 도중, 고을을 10리쯤 남겨 두고 길에서 선전관 원집(元集)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났다. 길 옆에 앉아서 보니, 병사가 거느렸던 군사가 모두 뿔뿔히 흩어져 갔다. 이날 닭 울녘에 송대립(宋大立)이 순천 등지로 가서 적의 정세를 정찰하여 가지고 왔다. 석곡강정(石谷江亭 *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에서 잤다.

초 8일(병인) 맑음. 새벽에 떠나 바로 부유(富有)로 오다가 중도에서 이형립(李亨立)을 병사에게로 보냈다. 부유에 이르니, 병사 이복남(李福男)이 벌써 부하들을 시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다만 재만 남아 있어 보는 바에 참담하였다. 점심후에 구치(鳩峙)에 이르니, 조방장(助防將) 배경남(裨慶男) 나주 판관 원종의(元宗義), 광양 현감 구덕령(具德齡)이 복병한 곳에 있었다. 저물게 순천부에 이르니, 관청과 창고는 그대로 여전했으나, 병기 따위를 병사가 처치하지 않은채 달아나 버렸으니 놀랄 일이었다. 상동(上東) 땅에 들어가니 사방이 적막한데, 오직 혜희(惠熙)라는 중이 와서 인사할 뿐 이므로 그에게 승병(僧兵)의 직첩을 주었다. 병기 중 긴 편전(片箭)은 군관들더러 저 나르라 하고, 총통과 같이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은 깊이 묻고 표를 세워두라고 하였다. 놀러 상방(上方)에서 잤다.

초 9일(정묘) 일찍 떠나 낙안(樂安 * 승주군 낙안면)에 이르니 관청과 창고가 병기가 모두 타 버렸다. 관리와 백성들도 눈물 흘리지 않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 김제군수(金提郡守) 고봉상(高鳳翔)이 산골로부터 내려와서 병사의 처사가 뒤죽박죽인 것을 말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패망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점심후 길을 떠나 10리쯤 오니 늙은이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가져다 바치는데 받지 않으면 울면서 강권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보성 조양창(寶城兆陽倉 * 조성면-조성리)에 이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창고 곡식은 봉한 채 그대로였다. 군관 네 사람을 시켜 수직하게 하고 나는 김안도(金安道)의 집에서 잤다. 그집 주인은 벌써 피란 나가고 없었다.

초10일(무진)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거기서 머물렀다. 배동지(裨同知)도 같이 묵었다.

11일(기사) 맑음. 아침에 박실(朴谷) 양산항(梁山沆)의 집으로 옮겼다. 이집 주인도 벌써 바다로 피란해 갔고 곡식은 가득 쌓여 있었다. 늦게 송희립(宋希立)과 최대성(崔大晟)이 보러 왔다.

12일(경오) 맑음.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하였다. 늦게 거제(巨濟), 발포(鉢浦)가 들어와 명령을 들었다. 그 편에 배설(裨楔)의 황겁해 하는 꼴을 들으니 괴씸하고 한탄함을 마지 못하겠다. 관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이나 하여 제가 감당치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 국가의 일을 크게 그릇치건마는 조정에서 살피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찌 하라. 보성(寶城)원이 왔다.

13일(신미) 맑음.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 발포 만호(鉢浦萬戶) 소계남(蘇季男)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우후(虞侯) 이몽구(李夢龜)가 전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본영(*전라 좌수영)의 군기와 군량을 한날도 옮겨 실지 않은 일로 곤장 80을 때려 보냈다. 하동 현감 신진(申)이 와서 전하기를, 초 3일 내가 떠난 뒤에 진주의 정개 산성(鼎蓋山城)과 벽견산성(碧堅山城)도 모두 흩어져 버리고 제 손으로 불질러 버렸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14일(임신) 맑음. 아침에 각항 장계 7통을 봉해 윤선각(尹先覺)을 시켜 모시고 가게 했다. 저녁에 어사(御史) 임몽정(任夢正)과 만나기 위해서 보성군(寶城郡)에 이르렀다. 이날 밤에 큰 비가 왔다. 열선루(列仙樓)에서 잤다.

15일(계유) 비, 비. 늦게 개었다. 선전관(宣傳官) 박천봉(朴天鳳)이 임금의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8월 초 7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곧 받자왔다는 장계를 만들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잠들지 못했다.

16일(갑술) 맑음. 박천봉이 돌아갔다. 활 만드는 이지(李智) 태귀생(太貴生)이 보러 왔다. 선의(先衣)와 대남(大男)도 왔다. 김희방(金希方), 김봉만(金鵬萬)이 뒤쫓아 왔다.

17일(을해) 맑음.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 백사정(白沙汀)에 이르러 말을 쉬고 군영 구미(軍營仇未 * 강진군 고군면)에 이르니 경내가 벌써 무인지경이 되어 버렸다. 수사(水使) 배설(裨楔)이 달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長興) 사람이 많은 군량을 훔쳐내서 떠 데로 가져가기 때문에 불들어다가 곤장을 때렸다. 날이 벌써 저물어서 그대로 머물러 잤다. 배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괴씸했다.

18일(병자) 맑음. 늦은 아침에 바로 회령포(會寧浦 * 장흥군 대덕면 회진리)에 간 즉 배설이 배말미를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고, 다른 장수들은 보았다.

19일(정축) 맑음.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교유서에 속배케 했다. 배설은 교유서에 예를 받들지 않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방(吏房)과 영리(營吏)를 붙들어다가 곤장을 때렸다. 회령포 만호 민정봉(閔廷鵬)은 위덕의(魏德毅)들에게서 술과 음식을 얻어 먹고 전선(戰船)을 사사로 내준 까닭에 곤장 20대를 때렸다.

20일(무인) 맑음. 포구가 좁아서 이진(梨津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아래 창사(倉舍)로 진을 옮겼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앓았다.

21일(기묘) 맑음. 새벽 2시쯤에 곱란이 일어났다. 차게 한 까닭인가 싶어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그만 인사불성이 되었다. 거의 구하지 못할 뻔 하였다. 토하기를 10여 차례나 하고 방새도록 고통하였다.

22일(경진) 맑음. 곱란으로 인사불성. 뒤도 보지 못했다.

23일(신사) 맑음. 병세가 몹시 중해져서 배에서 거처하기가 불편하고, 또 실상 전쟁때도 아니라 배에서 내려 포구 밖에서 잤다.

24일(임오) 맑음. 아침에 괘도포(掛刀浦)에 이르러 밥을 먹고 낮에 어란(於蘭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 바다로 왔다. 곳곳이 텅텅 비었다. 바다 가운데서 잤다.

25일(계미) 맑음.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아침을 먹을 때, 당포(唐浦)의 어부가 피란민의 소 두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 먹으려고 해서 적이 왔다고 거짓말을 외쳤다. 나는 이미 그런 줄 알고 배를 굳게 매고 까딱하지 않으며 그 자들을 잡아 오게 했더니 과연 예상한 그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군대는 안정시켰으나 배설(裒楔)은 벌써 도망쳐 버렸다. 거짓말을 한 두 사람은 목을 잘라 효시했다.

26일(갑진) 맑음. 그대로 어란(於蘭) 바다에서 머물었다. 늦게 임준영(任俊英)이 말을 달려 와서 적선이 벌써 이진(梨津)에 이르렀고 보고했다. 전라 우수사가 왔다 배의 격군이며 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니 놀랄 일이다.

27일(을유) 맑음. 그대로 머물었다. 배설(裒楔)이 보러 왔는데 황겁해 하는 빛이 많았다. 내가 불쑥 말하기를 「수사는 어디로 피해 갔던 것 아니냐」고 하였다.

28일(병술) 맑음. 새벽 6시쯤에 적선 8척이 갑자기 덩벼들어 여러 배들이 겁을 먹고 물러가려고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깃발을 휘두르며 추격을 명령하니 여러 배들은 피하지 못하고 적선을 일시에 쫓아 갈두(葛頭)까지 이르자 적선이 멀리 도망하므로 더 쫓지 않았다. 뒤따르던 배가 50여 척이고 했다. 저녁에는 장도(獐島)에 진을 쳤다.

29일(정해) 맑음. 아침에 벽파진을 건너가 진을 쳤다.

30일(무사) 그래도 벽파진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찰병들을 각지로 나누어 보냈다. 늦게 배설은 적이 장차 많이 올 것을 염려해서 도망하려고도 했으나 관하의 여러 장수들이 찾기도 하고 또 나도 그 속내를 잘 알지마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표하는 것을 장수로서 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 배설이 체 종을 시켜 소지(所志)를 냈는데, 병세가 위중하여 조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서 조리하라고 처결해 주었더니 배설은 우수영에서 육지로 올라갔다.